



##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스팟 리포트타주

취재 및 사진, 글 : 최성훈 (트렌드 리서처)

자료제공: 크레오로/최우현 디자인 연구소

### 주얼리 디자인

## ‘감정과 생각의 결정체’

- 크레오로/최우현 디자인 연구소 대표 -

마치 작은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주얼리 디자인 연구소에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얼리 디자인 작품들이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쇼케이스에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소품들은 최우현 대표의 주얼리 디자인 작품들과 잘 어울려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최우현 디자인 연구소 크레오로의 최우현 대표로부터 그녀의 주얼리 디자인 철학과 주얼리 디자인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자연주의 디자인 철학’

최우현 대표의 디자인 철학은 자연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대자연의 아름다움 그 안에 산과 들, 바다, 하늘, 구름 이런 자연에서 느끼는 영감을 색과 디자인으로 품어내는 것이다. 그녀는 자유로운 선과 부드러운 컬러의 비대칭적인 디자인을 즐겨 한다고 말하며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 작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틀려지는 자유로운 선들은 최우현 대표 스스로를 창작의 세계에 머물 수 밖에 없게 하는 신비한 힘이라고 말했다. 주얼리 디자인은 작은 크기지만 감정이나 생각을 거기에 담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디자인분야라고 주얼리 디자인의 매력을 설명했다.



사진 1> 자연에서 느끼는 영감을 디자인화 시킨 작품들



사진2> 최우현 대표 작품  
'at the moment that life is bright'



사진4> 최우현 대표

### ‘낙천적인 노랑색이 상반기 디자인의 트렌드 칼라’

전 세계가 불경기를 피부로 느끼는 어두운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한 듯 낙천적인 노랑색이 거리를 휩쓸고 있다. 올해 남녀 정장 모두를 아우르는 컬러인 노랑색은 형광 빛이 도는 노랑, 커피 베이지톤의 노랑, 브라운과 골드 느낌이 살아있는 노랑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도 대통령 취임식에 금빛이 도는 연노랑 원피스를 입고 등장했다.



사진3> 최우현 대표 작품  
'Singing for the Love'

### ‘고급스러우면서 현실성을 갖춰 정출된 스타일’

최우현 대표는 여성패션의 트렌드는 고급스러우면서도 현실성을 갖춰 절충된 스타일이라고 정의했다. 몸매 라인을 드러내는 아워글래스 실루엣이 특징이다. 아워글래스 실루엣은 큰 소매, 가는 허리, 플래어 스커트로 이루어지는데 젊은 감성의 관능미가 부각된 패션이다. 전반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요소(fell-good factor)’가 키워드가 되고 있다고 한다.

### ‘가늘고 섬세한 느낌이 트렌드’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길고 크지 않은 크기(지름 5~6mm)의 진주 비드가 강력한 유행 아이템이라는게 최우현 대표의 설명이다. 패션과 함께 주얼리에도 레이어드 바람이 불어 진주 비드도 두줄 혹은 세줄 겹쳐 연출하여 우아함을 강조할 수 있는데 선택 포인트는 진주 비드가 너무 두껍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진주 비드가 두꺼우면 무게 자체도 무겁게 느껴지며 투박한 느낌이 나서 바람직하지 않다. 보석 계통의 비드가 너무 클래식하게 느껴진다면 금속체인으로 된 긴 목걸이도 대세이다. 이때 금속 체인의 굵기는 가늘게 투박하지 않은 섬세한 느낌이 트렌드이며 가는 긴 줄에 큰 팬던트를 착용하는 스타일도 멋스럽다. 또한 귀걸이도 섬세한 체인들이 여러 줄 겹쳐서 흔들리는 스타일이, 팔찌도 두껍게 한 줄로 된 스타일이나 뱅글(원통 모양의 팔찌) 스타일 보다는 섬세한 체인이 여러 줄 겹친 스타일이 강세라고. 가볍지만 풍성한 느낌이 나며 규칙적인 디자인들보다는 크기와 스톤의 변화도 다양한 디자인들이 전반적인 흐름이므로 주얼리를 선택할 때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한다.

### ‘노랑색 호박, 황수정, 옐로우 토파즈 혹은 옐로우 사파이어 .. 올해 주얼리 트렌드의 중심’

패션에서 옐로우 컬러가 대세이므로 주얼리에 있어서도 노랑색 호박, 황수정, 옐로우 토파즈 혹은 옐로우 사파이어 등이 올해 주얼리 트렌드의 중심에 있으며, 호박의 금파라고 불리는 경우 투명호박과 밀화라 불리는 불투명 호박이 있는데 아주 연한 노랑색부터 짙은 초콜릿 색까지 다양한 칼라가 있어 여러 칼라의 호박이 섞여서 더 멋스러움을 연출 할 수 있다고 한다 . 불투명 호박인 밀화는 앤틱 느낌이 나서 색다른 매력이 있다. 수정 중에서는 자수정이 일반적이거나 올해는 유행칼라인 황수정의 인기가 예상되며 토파즈 중에서 옐로우 토파즈는 가장 고가이며 옐로우 색에서 짙은 황금빛을 띄는 아주 우아한 보석이다. 특히, 진주 비드 외에도 호박비드나 황수정 비드 등도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면서도 화려한 느낌보다는 멋스러움을 더 할 수 있는데 패션 자체를 트렌드 컬러로 연출 할 수도 있겠지만 주얼리 컬러로 포인트를 준다면 더욱 세련된 느낌으로 이미지를 강조 할 수 있다고 최우현 대표는 조언한다. 또한 경기 침체의 어두운 사회 분위기에 희망의 색 노랑색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화사하게 해 줄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 <취재후기>

생활 속에 가까이 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소하기도 한 주얼리 디자인. 특히, 여성이라면 누구나 그 매력에 한번쯤은 매혹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롭기까지 한 디자인 작품들을 보며 주얼리 디자인 분야에 관심과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자연이 만들어낸 원석들이 최우현 대표의 크리에이티브와 감성을 통해 작지만 가치 있는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과정을 보며 항상 새로운 컨셉과 그에 맞는 디자인을 위해 쏟는 그녀의 깊은 열정과 재능을 느낄 수 있었다.



사진5> 드로잉 과정



사진6> 최우현 대표 렌더링&작품  
'Sweet Whispering of the Birds'



사진7> 최우현 대표 렌더링&작품  
'with the rhythm'





사진8 전체> 주얼리 디자인 전시디스플레이

사진9 > 주얼리 디자인 전시회 中

The story of  
Deep & Blue sea



정원의 아침



기쁜 날에..... I  
2008  
Baroque Pearl, Diamond,  
18K



기쁜 날에..... II  
2008  
Baroque Pearl,  
Diamond, 18K



사진9 &gt; 최우현 대표 작품 'A Beautiful life'



사진10 &gt; 최우현 대표 작품 '정원의 아침'

### ● 학력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대학 금속공예과 수료

“레 아르띠 오라페” 귀금속 공예학교 수료(이탈리아 피렌체)

“도무스아카데미”패션과주얼리 전문과정 수료(이탈리아 밀라노)

“이화여자대학교 최고위경영자과정 62기” 수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배구조 1기 수료

서울 과학종합대학원 4T CEO 4기 수료

### ● 수상경력

1985-86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 입선

1987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000/01 한국디자인진흥원 'GD'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선정  
(산업자원부장관) 2회

2000 밀레니엄 여성 경제인 패션대전 '패션 디자이너상' 수상

2002 2002 FIFA 한일월드컵 TM 제품 10종 조달청 우수디자인 선정

2002.5 서울광관 문화상품 공모전, 은상, 동상수상

2004 한국여성경제인의 날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 현재

최우현 디자인 연구소 대표/크레오로 대표이사

중앙대학교 /홍익대학교 출강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금속장신구 디자인과 겸임교수

이탈리아 밀라노 '아트주얼리 전문 전시장' 상설전시

시장경영센터 자문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의원

(사)한국 귀금속 보석협회 고문

(사)한국 보석협회 이사